

‘은행 안에 은행’... 독립 조직으로 디지털 뱅크 선도

디지털금융 시대

④ 우리은행

플랫폼·핀테크 기업 제휴 강화
비대면 확대 넘어 열린금융 목표
위비뱅크, 오픈뱅킹 채널 구현
원뱅크 통해 모바일 부문 선도

디지털 금융시대가 도래하면서 ICT·핀테크 기업과 시중은행의 협업은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디지털 부문’을 미래 금융지주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꼽고 플랫폼·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이유다. 디지털금융그룹이 ‘은행 안에 은행(BIB, Bank in Bank)’ 형태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는 점도 우리금융만의 특장점이다. 디지털금융그룹에 사업추진의 독립성과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단순한 비대면 채널 확대를 넘어 전면적인 ‘디지털 뱅크’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오픈 파이낸스’로 새로운 가치 창출
우리은행의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 전략은 기존의 금융권에서 추진했던 폐쇄적 방식으로서의 혁신이 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닌, 은행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은행 내·외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간편뱅킹 특화 앱인 ‘위비뱅크’를 외부 참여사와 고객간의 접점을 제공하는 오픈뱅킹 채널로 구현해 다양한 외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 채널에서 우리은행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오픈뱅킹 채널에 맞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제휴·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디벨로퍼 랩(Lab)’을 오픈했다. 디벨로퍼 랩은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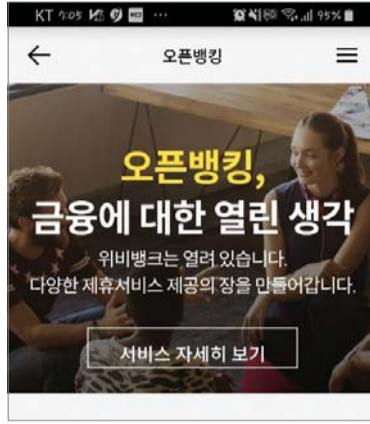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의 간편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위비뱅크’ 리뉴얼을 완료했다.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과는 별도로 유력 ICT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해, 핀테크 기업의 전문적인 육성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외에도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등 기술제휴 및 직접 투자를 병행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확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골드만삭스와 같은 해외 선도 금융그룹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까지 오픈소스 형식으로 공개하는 혁신적 오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업이 이커머스,



우리은행 ‘위비뱅크’ 내 ‘오픈뱅킹’ 카테고리. /홍민영 기자

플랫폼 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금융회사에게도 디지털 혁신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애자일도 느리다... 디지털부문 ‘독립’
우리은행은 디지털부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안에 은행(BIB·Bank in Bank)’ 형태의 디지털금융그룹을 설립했다. 영업점에 의존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조직 모델 구축이 디지털금융그룹의 중장기적 목표다.

특히 우리은행은 디지털부문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자율성 및 자체적인 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과 자율

성을 적극 보장했다. 이어 디지털금융 그룹 별도의 순수 비대면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투자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립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독립 취지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디지털금융그룹은 향후 핀테크 기업과 오픈API 기반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조성해 갈 계획이다.

‘원(WON)’ 뱅킹은 새로운 BIB의 핵심채널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8월 기존 모바일뱅킹 ‘원터치’를 원으로 리뉴얼 개편한 후 이를 대표 브랜드(BI·Brand Identity)화 해 그룹사 전체의 모바일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 관리한다. 원은 간편뱅킹 앱인 ‘위비뱅크’와 더불어 우리은행의 모바일 부문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의 모토는 ‘간결(Clear)·맞춤(Fit)·안내(Lead)’라며 “고객들은 원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결한 화면 구성과 쉬운 메뉴 구조 ▲고객별 맞춤형 공지 및 심플한 거래 연계 ▲은행의 고객별 금융상품 추천 등의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첫째줄 왼쪽부터)과 이원삼 농협은행 IT부문 부행장, 남영수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 등 임직원들이 DT 추진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협금융

농협은행 디지털전환 추진전략 현장점검

김광수 회장 “빅블러 시대, IT부문 중요”

NH농협금융은 5일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금융지주와 은행의 IT, 디지털, 기획 담당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은행 IT부문 디지털전환(DT)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8일 농협금융의 ‘DT비전 선포’에 이어 김광수 회장이 전략이행과 대응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회장은 농협은행 IT부문의 DT추진전략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직

원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사업부서-IT간의 경계를 허무는 애자일(Agile) 활성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대응 ▲디지털 인재양성 등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IT 부문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김 회장은 “IT부문의 DT추진계획이 ‘사람 중심의 디지털 농협금융’이라는 비전에 맞게 잘 수립됐다”며 “테크 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IT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삼성카드 ‘비스포크’ 디자인 카드 4종 선보여



삼성 디지털프라자 삼성카드.

이번에 적용된 비스포크 디자인은 웨딩 테마를 반영한 ▲화이트&우드 ▲소프트&파스텔 ▲다크&우드 ▲유니크&포인트 총 4종을 출시했으며, 비스포크의 질감까지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홍민영 기자

삼성카드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삼성 디지털프라자 삼성카드’에 고객 맞춤형 낭장고인 ‘비스포크(BESPOKE)’ 디자인 4종을 새롭게 적용하고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금융, 사회공헌 효과 측정연구 추진

연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계량화 작업 통해 지속성 측정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세대학교와 사회공헌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영향도를 측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철 신한금융 브랜드홍보부부장장과 이호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윤리/CSR 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양사의 연구진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이루어지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등에 대한 계량화 작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예정이다.



이병철 신한금융그룹 브랜드홍보부부장(왼쪽)과 이호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윤리/CSR 연구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또 향후 사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까지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폭넓게 활용할 방침

이다. 신한금융 이 부문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신한금융 사회공헌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중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 경영대학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연세대 이 센터장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경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신한금융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향후 금융산업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유병자·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

신한생명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

신한생명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해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신한초간편고지암보험(무배당, 갱신형)’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간편심사 암보험은 3가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조건 유무 ▲5년 내 암, 제자리암, 간경화로 진단·입원·수술 이력 유무 등 2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암 보장을 원하는 고령자를 위해 가입 가능 연령을 80세로 높였다.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유방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1000만원의 진단금여금을 지급한다. 또 유방암 진단 시 500만원, 전립선암 진단 시 200만원을 보장한다.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 확정 시 진단금여금은 100만원이다. 김희주 기자 hj89@

KB손보 중국법인 중고객서비스 평가 ‘AA’

KB손해보험은 5일 KB손보 중국법인이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은보감독회)가 실시한 2018년도 중국보험회사 고객서비스 평가에서 ‘AA’ 등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KB손보 중국법인이 취득한 고객서비스평가부문 ‘AA’ 등급은 중국보험시장에 진출한 외계 보험사로는 유일하게 취득한 최고 등급이다. 중국 전체 87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AA’ 등급을 취득한 중국 손해보험사는 PICC, PING AN, CPIC 등 5개에 불과하다.

/김희주 기자